경북일보
2007년 03월 01일 007면

## 자기부상열차 개발 '로템' 대표 대구시 방문

# "시범노선 대구 유치 적극 협조"약속

로템사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대구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기부상열차 대구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자기부상열차 개발회사이며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주)로템 이여성 대표이사는 28일 오후 신임 인사차 김범일 대구시장을 방문한 뒤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

대구시는 이번 (주)로템 대표의 방문으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대구유치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건교부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 공고가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기부상열차 대구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로템은 지난해 9월 11일에는 대구시와 자기부상열차 대구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차량개발 분야 주관 연구기간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템은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한 회사로서 프랑스 TGV와 기술제휴로 현재운행중인 KTX 차량을 제작했으며, 대구지하철 1·2호선에도 차량을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철도차량제작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자기부상열차 개발회사이며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주)로템 이여성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신임 인사차 김범일 대구시장을 방문하고 자기부상열차 대규유치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